

강한희 창작가곡

# 도요새

시인 박경리

도요새 / 박경리

가엾은 녀이여  
어디를 헤매다 이제 오나  
수만리 장천  
한 마리 도요새 되어  
날아가다 돌아왔나

때 묻은 장판방  
벽에는 작업복  
줄레줄레 걸려 있고  
한밤은 창가에 걸려 있다.

개구리가 운다  
봄이 지나가고  
초여름인 것을 깜빡 잊고 있었구나

한 마리 도요새 되어  
수만리 장천 날아가다  
돌아온 나의 녀이여  
자리 잡고 앉아요  
남은 세월 함께 가야지

# 도요새

박경리 시  
강한희 곡

[ ♩ = ca. 66 ]

황혼이 바다가 된 평온의 시간.  
썰물로 드러난 갯벌, 한 마리 도요새에게 머문 시선

자유롭고, 여유롭게.  
위 표제를 그리듯 연주

8<sup>va</sup>

pp p

5 3 mp p p

9 [ ♩ = ♩ = 48 ] dolce p

가없은 녀 이 여

14 어디를헤 - 매

19

다 이-제 오 나

24

*p*

수-만 리 장 천 한-마 리 도요 새-되

29

[ ♩ = ♩ = ca. 90 ]

어 날아-가 다 돌-아-왔 나

*mp* *p*

*p legato*

34

*poco a poco cresc.* *mf* *rit. rubato*

38 고즈넉이 [♩ = 75]

*mp*

때 문 은 장 판 방 벽 에 는 작 업 복

[♩ = ♩ = ca. 114]

갑작스럽지 않도록,  
실타래 풀리 듯 서서히 변화

46

줄 레 줄 레 걸 러 있 고 한 밤 은 창 - 가

[♩ = 51]

고요한 밤과 은은한 달빛의 노래

49

에 걸 러 있 다

*mp*  
*legato*

속도를 조금 당겨서  
익살스럽게, 각 시상을 묘사하며

*mp poco a poco cresc.*

개구리가운다

[♩. = ca. 57]

속도를 좀 더 당겨서,  
봄을 머금고 화려하게 지나가는 꽃잎처럼

봄이 지나가고 초여름인 것이다

음 깜빡 잊고 있었구

나 - 한 마

[♩. = 57]

60 어느샌가 낙조를 가르며 멀리 날아가는 새의 황홀한 광경

리 도요새 - 되 어 수

*sempre f*

62 [♩. = ca. 101]

만 리 - 장 천날아가 다 - 돌아

*mf*

65 [♩. = ca. 69]

[♩. = ca. 81]

긴장감을 가지고

*accel. poco a poco cresc.*

온 나의 녀 이 여 녀 이

*mp*

*f mp poco a poco cresc.*

*mf*<sup>2</sup>

한 음절 한 음절 곱씹으며

67

여 녀 이 여 녀 이

*sf mf* *sf mf* *molto cresc.* *f*

[♩. = 60]

황홀하고도 장엄한 광경  
서서히 시야에서 멀어지며 사라져간다.

(가능한 한 이 길이까지)

69

여

*ff* *ffz* *legato*

71

*f* *sf* *legato*

73

*mf poco a poco dim.*

75 rit.

78 진네는 말처럼, 빠르기에 구애 받지 않고 [♩ = ca. 66]

***p* molto espress**

자 리 잡 고 앓 아 요 남 은 세

80 rit. [♩ = 48]

월 함 께 가 야 지

83